

지상공청회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개정(안)(1)*

우리협회 분류위원회(위원장: 남태우, 중앙대학교 교수)는 2007년 제 1차 회의(2007년 7월 30일)에서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1996)을 개정하여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이하 KDC 제5판)을 한글본으로 발간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도서관문화』 2007년 9월호, 4, 7-9면 참조).

KDC 제5판은 분류표와 색인의 표기를 한글로 하되, 고유명사·전문용어 등은 한자와 영문표기를 병기하는 한편, 학문과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른 본표의 개정 작업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분류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알리고, 도서관 현장과 실무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에 대해 도서관인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KDC 제5판 발간을 위한 의견수렴은 『도서관문화』를 통해 ‘지상공청회’로 진행됩니다.

도서관인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의견 주실곳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이경구 lkk1947@kla.kr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실무간사

최인경 ikchoi@kla.kr

(전화 02-535-4868 / 팩스 02-535-5616)

100 철학

- ① 111.7(미학) 부분은 예술미학과 협의 필요.
- ② 113.1(공간)등 3~4세목을 “목”으로 전개할 것을 제안
⇒ 관련 학문 영역을 좀 더 검토기로 함.
- ③ 4판에 비워둔 “120”에 “인식론”을 배치하자는 의견 제시
⇒ 합의, 다만 분류항목이 비어있는 기호의 사용은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필요함.
- ④ 147.9에 “북한 철학”을 배치 ⇒ 합의
- ⑤ 140(경학)을 중국철학에 포함시키고, 140을 “한국철학”. 150을 “동양철학”, 151은 “경학”, 152를 “중국철학”으로 하자 → 필요시 여론 수렴기로 함. ⇒ 기존 분류 지조를 바꾸는 것은 문제가 많고 특히 경학은 한·중·일 철학의 기본사상이므로 존치가 타당하다는 의견

* 이번호에서는 철학, 종교, 국악 분야 논의내용을 수록하였다.

200 종교

도 있었음.

→ 만일 140을 한국철학으로 수정하면 (안)으로 제시한 147.1 북한철학을 147.9 북한철학으로 하여야 함.

- ⑥ 182.2(양성심리)를 세분하자 ⇒ 합의
- ⑦ 183.6(장년심리)를 성인심리로 바꾸고 세분하자 ⇒ 합의
- ⑧ 인간의 성장에 따른 구분을 통일하기로 함 ⇒ 합의
- ⑨ 189 응용심리학을 추가하면서 산업심리학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자 ⇒ 합의
195(직업윤리 일반)를 특정 직업별로 세분하자 ⇒ 제시된 직업군보다 더 확장해서 전주제구분을 적용할 수도 있지 않은가?
199 경영훈의 경우 주기를 달도록 하자 윤리적인 경영과 관련된 것은 이 부분에 사회과학 분야인 경영학과 관련된 것은 사회과학 부분에 분류하도록함. ⇒ 합의
- ⑫ 199.6 성년훈 추가하자 ⇒ 합의
- ⑬ 199.7 노인훈 으로 ‘중고연령층 인생훈’ 은 삭제하자 ⇒ 합의
- ① “3”(경전)에 성경 등의 의미를 가진 “성전”을 추가하자 ⇒ 합의
- ② “5”(포교·전도활동)을 “선교·포교·전도·교육”으로 변경하자 ⇒ 합의
- ③ 종교 공통구분 “57”, “59”를 신설하자 ⇒ 2자리 숫자까지 구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만큼 실용성이 의문되어 채택치 않음.
- ④ 209.8(종교지리)를 신설하자. ⇒ 209(종교사)에 “지리적 취급”을 포함 시키는 것으로 해결.
- ⑤ 215.8(종교사회학)을 “종교와 사회”로 하자. ⇒ 관련학문을 좀 더 검토기로 함.
- ⑥ 217.4의 “헌납”을 “봉헌”으로 고치자 ⇒ 합의
- ⑦ 220.18(불교심리학), 220.99(전기)를 신설하자 ⇒ 표준구분표 사용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므로 채택치 않음
- ⑧ 225.26(대 일반대중 설법)을 “불교절기 및 공식적 행사 설법”으로 고치고 주를 표기하자 ⇒ 표제어는 고치지 말고 주만 표기하기로 합의(불교 축제일과 결혼, 장례 등을 위한 설법을 포함한다.)
- ⑨ 225.27(라디오·TV·인터넷 등을 통한 설법)을 신설하자 ⇒ 자료의 존재 유무가 불투명하여 채택치 않음.
- ⑩ 225.75(교육제도 및 교육방법), 226.4(승직) → 승직·교육제도, 226.8(강원, 선원, 율원, 염불원), 206.87(불교단체)등을 신설하자 ⇒ 합의
- ⑪ 227.6의 주기 중 “만다라”는 227.65에 신설하자 ⇒ 합의
- ⑫ 231.17(신의 법)을 기적·계시·예언으로 고치자 ⇒ 신의 “법”의 의미가 전문용어로 판단되므로 좀 더 조사하되 전문용어라면 고치지 않기로 함.
- ⑬ 231.45(회계와 용서)를 신설하자 ⇒ 합의
- ⑭ 231.8의 주기에 “사도신경”을 포함하자 ⇒ 합의
- ⑮ 232.2(로고스)를 “하나님의 말씀(로고스)”로 하자 ⇒ “로고스” 그대로 두기로 함.

- ⑩ 233.07의 주기에 “헬라이어” 추가 ⇒ 합의
 - ⑪ 233.071(다국어 국어 대역서) 신설 ⇒ 합의
 - ⑫ 233.08 주기에 비평을 문학적, 역사적 비평으로 고치자 ⇒ 합의
 - ⑬ 233.61(대관복음)을 공관(대관)복음으로 하자 ⇒ 합의
 - ⑭ 233.67(기적)의 주기에 “예수일생에서의 기적은 232.83에 분류 한다”를 삽입하자 ⇒ 합의
 - ⑮ 235.69(주기도문), 235.693(산상수훈) 235.696(팔복...)의 항목 이치 및 표기를 조정하자 ⇒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여지숙 위원이 조사 후 의견을 제출.
 - ⑯ 234.17(기독교 윤리문제)를 “기독교 윤리”로 하자 ⇒ 합의
 - ⑰ 234.7(직업별신앙생활)신설 ⇒ 관련 내용을 추가로 검토키로 함.
 - ⑱ 234.8-89의 항목표기를 조정 및 신설 ⇒ 관련내용을 추가로 검토키로 함.
 - ⑲ 235.26(대일반대중 설교)에 주기 신설 : “교회 축제일과 세례, 견진, 결혼, 장례를 위한 설교를 포함 한다 ⇒ 합의
 - ⑳ 235.27(라디오, TV...)신설 ⇒ 불교의 예와 같이 채택치 않음.
 - ㉑ 235.37(목회 방법) 신설 ⇒ 4판 유지
 - ㉒ 235.68(교파별 설교) 신설⇒ 4판 유지
 - ㉓ 235.735(장년부)를 “성인부”로 고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보류됨.
 - ㉔ 235.84~87을 신설 주류별 주제와 관계설정을 신설하자 ⇒ 235.84(기타주제와의 관계)로 해결 가능하므로 4판 유지.
 - ㉕ 236.24(미디어 이용 홍보프로그램) 신설 ⇒ 자료 수에 의문, 4판 유지
 - ㉖ 236.387, 236.875, 236.885의 신설 또는 조정 ⇒ 효과가 적어 4판 유지.
 - ㉗ 236.9(교회사)에 표준구분 주기설정 ⇒ 주기 설정이 필요함.
 - ㉘ 237.391-.3979(특정지역의 성지) 신설 ⇒ 성지의 지역구분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 합의
 - ㉙ 237.4(성례 · 성사)를 “의식”으로 항목변경, 237.5로 이치 ⇒ 합의
 - ㉚ 237.6(십자가, 성상, 휘장) 불교와 같이 신설 ⇒ 합의
 - ㉛ 239.2 성전(탈무드, 미드라쉬...)항목설정 ⇒ 합의
 - ㉜ 259.9(기타 단군신앙)에 “개천교, 광명도, 한얼교, 단군영모회 등을 포함한다” 주기설정 ⇒ 합의
 - ㉝ 270(바라문교, 인도교)를 “힌두교, 바라문교”로 표기 조정 ⇒ 합의
 - ㉞ 299(기타 다른 기원의 종교) “그노시스교(마니교), 견신론(점신론), 사이언톨로지 등을 포함한다”로 항목 및 주기 신설 ⇒ 합의
 - ㉟ 불교, 기독교의 각 교파(228,238) ⇒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식 전개방법을 재 논의키로 함.
-
- ① 679(국악)은 679(국악 및 동양음악)으로 표기하고 679.9에 국가별로 동양 지역구분(912~919)에 따라 분류기호를 배정함 ⇒ 합의
 - ② 러시아 · 오세아니아 전통음악은 따로 구분치 않고 670.9에 지리구분하여 음악사에 포함 시킴 ⇒ 합의
 - ③ 아프리카 전통음악은 결정 보류.